

## I. 문학[간행본] 실적을 제출하실 때 유의사항

작품정보(작품명·세부장르·작품수록면·작품분량·성격 등), 발행정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참여정보(신청자명·신청자 역할) 등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발표매체 인정범위]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 II. 문학[간행본] 실적 제출자료 예시

아래 ① + ②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①

표지+목차+발행정보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②

작품 수록면(시는 3편 이상, 소설·수필 등 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

1-1. 표지

# P E N

그동안 우리 자신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각했던 번역의 문제를 꼭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결심을 해나 할 때라고 본다.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내 작품집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도 통용되는 것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특집 | PEN문학상 수상자



THE PEN LITERATURE  
 격월간 PEN문학 2020년 2월 19일 통권 153호 발행처 국제PEN한국본부

# 문학

# N



2020. 1·2월호 vol. 153

- 주말 신종우 양정민 양주의 이은화 이상아 정류진 정홍술 천복자 최승희
- 동시 고은별 박종분 권오훈 김완기 이봉훈
- 특화 박승인 양동선 정영웅 차외재
- 평론 김관식 명계용 홍정화
- 희곡 이강렬
- 시·시조 강병조 권희자 김중용 김경렬 김영희 김영희 김철기 김현숙 류병구 박수민 박이도 박종숙 서금자 서상만 성태진 신두업 신성종 여영자 오동춘 오현정 윤유점 이성주 이승희 이신강 이육천 이인평 이정현 임정남 임하연 정광수 정석영 정정근 채규만 채분석 최병준 최순향 최창도 하순명 황보광 황하택
- 단편소설 박종규 정승수
- PEN뉴스 사무처통신 | 국제PEN 소식 의

문예지명  
 발행호수

신청자명

참여작가가 많은 경우  
 신청자 본인 부분을  
 표시해주세요

ISSN  
 또는  
 ISBN

# ①-2. 목차

## PEN 문학

2020. 1 - 2월호 vol. 153

(사)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손해일

부이사장 김용재 임병호 오경자 정용원 전경애

사무총장 김경식

- 251 정광수 묘妙한 일이다
- 252 정석영 시원始原의 꿈
- 253 정정근 아버지
- 254 채규판 슬픈 삼화
- 256 채봉식 봄의 길목
- 257 최병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 259 최순형 단풍
- 260 최창도 어떤 상황
- 262 하순명 흰 동백
- 263 황보광 히야신스
- 265 활하택 봄의 소망

### 단편소설

- 266 박종규 내가 이승에 있을 때
- 277 정승수 마용사가 된 상옥

### PEN뉴스

- 294 사무처 통신
- 297 국제PEN 소식
- 305 지역위원회 소식
- 308 회원의 출판 및 간행물 소식
- 346 발전 기금 현황
- 350 편집후기

## 신청자명

-----  
참여작가가 많은 경우  
신청자 본인 부분을  
표시해주세요

# ①-3. 발행정보면

## PEN 문학

2020년 1·2월호 | 통권 153호 | 2020년 2월 19일 발행

발행인 | 손해일

편집인 | 오경자

주 간 | 전경애

편집장 | 김윤희

발행처 | (사)국제PEN한국본부

전화 : (02)782-1337~8, 785-4429

팩스 : (02)786-1090

주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1105호 국제PEN한국본부

홈페이지 : [www.penkorea.or.kr](http://www.penkorea.or.kr)

이메일 : [penmunhak@penkorea.or.kr](mailto:penmunhak@penkorea.or.kr)

등 록 | 2001년 6월 12일 No. 문화 바02876

인 쇄 | 신아출판사(063-275-4000)

**pen**  
INTERNATIONAL

국제PEN한국본부  
A WORLD ASSOCIATION OF WRITERS

이 사 장 | 손해일

부이사장 | 김용재 임병호 오경자 정용원 전경애

사무총장 | 김경식

문예지명  
발행호수

발행일, 발행처  
[연, 월, 일]

## ② 작품 수록면

[시 작품은 전편 발췌]  
[기타 장르는 일부 발췌]

### 미용사가 된 상욱

정승수 jss3320@naver.com

손교장이 전근해 온 때는 이른 봄이었다. 전에 있던 학교에 비하면 건물이 낡았다. 아직 정도 들지 않아 어수선한 기분이었다. 화단에 나가 손질을 하고 쉬고 있었다. 일하는 아저씨들이 목련가지를 자르려고 했다. 급히 뛰어났다.

- 나무 가지를 자르지 마세요.

쳐다보니 벌써 가지마다 누런 털 껍질을 벗었다. 신부 드레스처럼 흰 꽃송이가 봄을 찬양하듯 활짝 웃고 있었다. 나무들은 아직 두터운 외투 속에 꼼실거리는데, 목련은 버선발로 나와 새봄을 맞이하고 있다. 가지치기를 못하도록 말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마음 놓고 숨을 내 쉬었다. 그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 실례합니다.

머리가 덩수룩한 중년 남자였다. 보아하니 책장수인 듯 했다.

- 어떻게 오셨는지요?

손교장은 사무 투로 물었다.

- 혹시 손동규 선생님 아니신지요? 전상욱입니다. 저를 아시겠어요?

- 자네가 상욱이인가? 구천학교에...

은사님을 반갑게 솔뚜껑만한 손으로 덱식 잡았다.

작년 5월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교육청에서 스승 찾아드리기 운동